

소상공 · 전통시장 지원... 3차 추경 집행 개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용자 · 점포철거 지원 등 6개 사업에 756억원 지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 편성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의 2020년 제3차 추경예산의 집행이 시작됐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난 20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년 3차 추경예산 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디지털·온라인화를 위한 756억원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을 개시한다

고 지난 24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용자와 점포철거 지원사업을 확보해 신청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한도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이며, 대출금리와 기간은 추후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또한, 폐업 (예정)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비용에 90억원이 지원된다. 업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폐업

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으로 84억원을 지원한다. 전국 35개의 소상공인 밀집 상권을 스마트시범상가로 지정해 상점가 내 상점이 스마트기술(LoT, AR/VR, AI 등)을 도입하여 경영·서비스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수작업 위주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비용 지원사업으로 45억 원을 지원한다.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시장에도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에 7억 6,000만원이 투입된다.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이 높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진출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에 온라인MD 등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해 시장과 상점가의 온라인

판로와 배달 서비스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이번 추경예산 지원사업에 보다 많은 전북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이 선정되어 지역 소상공인들의 활력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사업별 공고가 진행되며, 지원조건,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누리집(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포털(www.stiz.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폭염대비 건설현장 근로환경 점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여름철 폭염에 현장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근로환경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27일 부터 31일 까지 새만금 사업지역 내 동서,남북도로, 신항만 등의 기반시설과 산업단지, 환경생태용지, 캠퍼리, 열거부지 등 매립·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11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새만금개발청은 휴게시설 설치, 소금·깨끗한 음수·구급약품 비치, 작업 중 휴식시간 제공, 폭염 시 행동요령 교육 등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휴식) 준수, 온열질환 예방대책 마련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대책 등을 점검한다.

또한 폭염 특보(폭염 주의보,경보) 발령 시에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낮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제공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6월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한 '우기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따른 미비한 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시행,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독려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폭염과 코로나19가 겹치는 시기인 만큼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뼈 건강'에 좋은 인삼 고시형 기능성 원료 되다

농진청, 등록 성과 거둬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인삼의 '뼈 건강 개선' 효과를 입증하고,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인삼의 고시형 기능성은 기존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이어 '뼈 건강 개선'이 16년 만에 추가돼 3가지로 늘게 됐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고시형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은 것은 2014년 마늘(폴레스테롤 개선) 다음으로 두 번째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인삼 추출물을 섭취한 집단이 대조 집단에 비해 골형성 지표(오스테오칼신) 함량 변화치는 11.6배, 칼슘 함량 변화치는 3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인삼은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뼈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은 뼈 건강 개선효과가 있는 인삼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시형 원료 전환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8일 '인삼의 뼈 건강을 건강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고, 이날 10일

자로 정식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추가 등록했다. 새로 등록된 고시형 원료는 진세노사이드(사포닌) Rg1과 Rb1을 합쳐 25mg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에는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두 가지가 있다. 기능성을 입증한 업체만이 제조 권한을 갖는 개별인정형과 달리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되면 규격과 기준에 맞춰 누구나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성과는 인삼을 원료로 '뼈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자유로워져 인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술 설명회와 기술 이전을 통해 인삼의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록 결과를 확산함으로써 인삼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인삼특작부장은 "홍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인삼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될 인삼 소비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인삼의 기능성 연구에 매진해 또 다른 효능을 발굴하고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독특한 향... 풍부한 영양... 패션프루트 수확 최근 완주군 이서면 삼촌농장에서 농장관계자가 패션프루트를 수확하고 있다. 독특한 향과 풍부한 영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열대 과일인 패션프루트는 100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로 불린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오늘부터 '농촌관광 할인지원' 추진

농식품부, 3개 카드사와 협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7일부터 농촌관광 할인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농촌관광할인지원사업은 농촌 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지를 방문한 여행객의 이용금액 30%를 할인 지원(최대 3만 원)해주는 사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으며 총 지원규모는 18억 원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관광을 계획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농협·신한·현대 3개 카

다사의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농촌관광 할인 이벤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3개 카드사를 통해 선착순 6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할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전국 1,700여 곳의 지정된 농촌 관광지를 방문해 이벤트 신청 카드사의 카드로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 농특산물 구매 등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청구할인 또는 캐시백 형식으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업체 정보는 '농촌여행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및 3개 카드사는 할인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aT센터(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조재호 차관보, 한국농어촌공사 조석호 농어촌지원개발원장, NH농협카드 서준호 부사장, 신한카드 이영민 상무, 현대카드 김대경 실장이 참여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국민이 농촌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에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산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진청, 산림청, 농림부와 합동으로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남원 농협인 한마음 상생 행사

남원시 농협발전상생협의회(의장 박노현)는 지난 24일 인월면 달오리마을에서 하반기 농협발전상생협의회 및 팜스테이마을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농촌관광객 급감으로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남원관내 농협협의회 20여명이 팜스테이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박노현 의장은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심신이 많이 지쳤을 것이라며, 앞으로 아름다운 농촌마을에서 다양한 체험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농협발전상생협의회는 남원지역 농협계동조직의 소통·상생 및 역량 결집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현재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농업농촌 문제를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중기 '오! 필생' 지원 참여기업 선정

도 - 경진원, 최종 78개사

전북도와 (재)전북경제진흥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한 '전라북도 중소기업 오! 필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2차례에 걸친 모집 결과 도내 159개 중소기업이 접수, 전북도는 성장 가능성, 기업 위기, 고용상환 등을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78개사를 선정했다. /유호상 기자

최종 선정된 기업은 기술인력 유출 방지 지원금을 고용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받아 원·부자재 구입, 기술개발, 마케팅 등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업 선택형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도 정책자금 저치기간 연장, 신용보증재단 연계 특례보증 등 직·간접 지원이 동반돼 코로나19로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국민연금, '노사문화우수' 선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이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해 노사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 대상자 1,231명 전원을 직접 고용 방식으로 2019년 말까지 조기 전환 완료하는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특히, 공단은 업무관련 부서 및 전환 대상자와의 열린 간담회, 전문가가 포함된 꾸준한 '정환 협의회' 개최 등 총 76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콜센터 상담원 등 17개 직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직원 임금금액 차이를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50개를 창출했다.

이외에도 노사가 합심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 공단 구성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3급 승진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사제도 전반을 혁신하는 성과를 이뤘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기원, 만감류연구회 총회 추진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도내 한라봉, 홍예향(레드향) 등의 만감류와 시설감귤의 재배기술 및 정보 공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만감류연구회 임원진구성회와 하반기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추진했다.

홍예향과 천년향은 레드향과 천혜향 품종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으로 전북 만감류연구회에서 도민 공모를 통해 사용하고 있다.

만감류는 나무에서 완전히 익도록 오래 두었다가 따는 밀감이란 뜻으로 도내 재배면적은 꾸준히 늘어 80여 농가가 22ha규모를 재배하고 있고 이 중 50여 농가가 만감류연구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선출된 완주군 아미농장 김운기 회장은 한라봉과 조생종 감귤 등 1,000㎡의 규모를 재배하고 있다.

김 회장은 연구회 구성 초기부터 부회장으로 활동해 왔고 한라봉, 홍예향, 천년향(천혜향) 등의 다양한 품종에 대한 특성과 재배기술 등을 공유하고 재배기술향상에 기여해 왔다. 앞으로



현장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갖춰 판로확보에 노력하겠다.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보급과 박정호 지도사는 도내 만감류 재배농가의 경우 화훼나 채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던 시설에 대체작물로 만감류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많아 전문가의 현장지도 등을 통한 밀실조건을 개선하고 단맛과 신맛을 측정해 출하하는 당산도 선별로 시장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연구회 회원의 2/3로 참여 인원을 줄이고 참석자 체온 확인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추진되었다. /익산=장영민 기자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여름철 할인 프로모션 진행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함께하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여름철 할인 프로모션'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에서 오는 8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인식확산과 사회적경제기업상품 판매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또한 코로나19로 힘겨운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비

자를 위해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성·판매하고 3만 원 이상 구매 시, 대화음 잠바 구이를 선착순 제공한다.

경진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과 사회적경제 기업을 더욱 많이 알리고, 긍정적인 인식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지난 24일 조합장실에서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비롯하여 부서장 및 지점장들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전결산에 위한 비상경영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쇼크에 따른 상반기 사업영향·자산건전성·유동성·자본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 방향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이정용조합장은 "코로나19의 파급효과를 가능한 한 막고, 부서별 과·단기 컨팅전시 플랜을 강화해 건전성과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지원함으로써, 농업이 가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제농협은 "2020년 상호금융대상 2분기 평가"에서 CAMELS 등 24개 항목에서 전국3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김제=곽도태 기자